

한국 신문에 나타난 강간보도의 통시적 분석

강간통념과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이정교*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조교수)

서영남**

(경희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최수진***

(경희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신문들이 강간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는지를 강간 통념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주요신문 4개사의 강간 보도를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매체별, 시대별 강간 보도의 양상을 통시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신문은 강간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서 단편적이고 사건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화적 프레임이 주제적 프레임에 비해 압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서술된 기사는 전체의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신문이 강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강간보도 중 강간 통념이 발견된 기사의 비율은 22.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피해자에게 책임을 귀인시키는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 기사 중 약 30%에 해당하는 기사에서 양가적 성차별 유형들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보도의 양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대부분의 성차별 유형은 보호적 여성주의로 나타나 우리나라 강간보도에 나타난 성차별의 특성은 적대적인 것보다는 온정적인 것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미디어 프레임, 강간통념, 양가적 성차별주의

* jglee@khu.ac.kr, 교신저자

** mercury1976@paran.com

*** love61sj@hanmail.net

1. 문제제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성폭력실태 조사에 따르면 1년간 성인 여성 1천 명 가운데 2.2명꼴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건수는 여성 1천 명당 6.1건으로 1명이 평균 2.8건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이현정, 2008.5.31). 하지만 범죄의 특성상 발생한 강간사건의 신고율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국내 강간범죄의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강간은 미디어의 입맛에 맞는 주제이기도 하다. 강간 행위가 내포하는 남성 위주의 가학적 성폭력(Brownmiller, 1975)은 선정주의(sensationalism)를 향한 미디어의 오랜 탐닉에 잘 들어맞고,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자아내는 서사는 여타 범죄 보도와는 달리 더 많은 재량권을 미디어 종사자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범죄로서의 강간에 대한 이러한 흥미 위주의 보도가 작게는 여성이 대부분인 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을 말살하고 크게는 강간에 대한 사회의 효율적 대응을 더디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한 민간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2006년 전반기 6개월 동안 보도된 주요 일간지의 강간 기사 중 약 1/3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었고, 그 세부 수단은 가해자의 회화화, 피해자 정보의 노출, 선정적 헤드라인, 피해자 비난 등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여성민우회, 2006).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남성 중심 사상에 근거한 뿌리 깊은 사회적 통념에 있다고 파악한다(Muehlenhard & Linton, 1987; Alison & Wrightsman, 1993). 가장 일반적인 강간통념의 하나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성폭력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성폭력을 충동적인 행동으로 합리화시켜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강간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인 여성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할 우려가 있다(이석재, 1999). 비단 이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차원에서도 이 가설은 어느 정도 지지되는데,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실시한 한 여론

조사 결과 한국 남성 범조인의 60% 이상이 “여성의 야한 의상이 성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그 대표적 예이다(강인규, 2005.5.31).

그러나 강간 범죄에 대한 미디어의 편향된 보도는 가부장적 체제의 결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가 사회적 통념을 강화하는 일종의 순환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강간에 대한 사회 전체의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위치의 역전 현상(diversion of victim status)’ 등 부당한 편견을 낳게 된다(Howells et al., 1984).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나 강간사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근간에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일반인들의 강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가장 변별력 있는 요인의 하나로 성차별주의(sexism)를 제시하고 있다(윤병혜·고재홍, 2006). 특히 Glick과 Fiske(1996)는 이러한 성차별주의가 적대성과 온정성의 양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오늘날의 성차별 양상이 과거에 비해서 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추세에 비추었을 때 성차별주의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은 강간보도의 추세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강간 통념(rape myth)’과 ‘양가적 성 차별주의(ambivalent sexism)’ 등 사람들의 강간범죄 인식과 태도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 심리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 신문의 강간 보도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강간 범죄 자체가 성적 차별, 그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추론에 근거하여, 뉴스 안에 내재된 성 차별적 태도와 그 태도가 빚어내는 강간에 대한 편견과 오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주요 신문 4개 사의 강간 보도를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보도 양상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보고함으로써 매체별, 시대별 강간 보도의 추세를 조망하고자 한다.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삽입된 성 폭력에 대한 여러 편견과 고정관념이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보도에서 형상화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론적·실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뉴스 프레임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그

이슈를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태도를 형성할 것인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Kosicki, 1993). 과도된 사회적 인식은 문제의 해결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상이 된 사회 일방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편파된 성차별주의식 보도는 또 다른 잘못된 강간통념을 재생산해낼 가능성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1) 강간보도와 뉴스 프레이밍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국내 범죄현황 분석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강간 범죄의 수는 무려 197,765건에 달하며, 2005년 발생 건수는 총 11,757건으로 전년보다 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07). 더욱 놀라운 것은 위 결과가 실제 발생 건수가 아닌 신고가 접수된 경우만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피해자의 신고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적게 나타나는 강간 범죄의 특성상(Berry, 1995), 이러한 수치는 한국적 상황에서 강간이 큰 사회적 피해를 낳고 있고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하겠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해서 당사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폭력적 행위로서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성적학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반면, 강간은 성적 공격행위의 정도에 따른 일탈 행위의 일종으로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조은경, 1994). 한국의 법제는 강간 범죄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항거 불능의 상태로 하고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297조)”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완력 또는 신체적 위협에 의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제 성교를 말한다. 그러나 Bart와 O'Brien(1985)은 강간의 개념은 성기삽입뿐 아니라 손가락 등 이물질의 삽입, 구강성교(oral sex)의

강요까지 포함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하였고,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제한도 수정되어야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과거와 달리 성적 공격 행위의 종류가 점점 구체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혼외 관계에만 적용되었던 강간의 개념을 혼인 관계까지 확장할 것과, 학대 및 일탈적 행위 등을 포괄한 성폭력(sexual violence)의 하나로서 파악할 것을 주장하였다.

강간 범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강간 피해자들은 이러한 장애가 가장 심한 집단 중 하나이다(Foa, Rothbaum, Riggs & Murdock, 1991). 또 강간은 피해자가 1차적으로 받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특징을 지닌 범죄이다. 여기서 2차 피해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나 병원, 언론기관, 사법기관에 종사는 자들이 1차 피해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여 그들을 배려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심리적 또는 사회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 예를 들어, Burgess와 Holmstrom(1979)은 강간을 당한지 4~5년이 지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면접 응답자 중 37%가 정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수년이 걸렸으며, 26%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강간 범죄의 장애적인 사후 특성을 지적하였다.

고행자(1999)는 한국 사회에서 강간 범죄가 한국 특유의 가부장적 전통과 성에 대한 이중적 가치 규범 등에 기인한 성문화의 왜곡 등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의 고정관념은 강간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성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Muehlenhard & Linton, 1987)를 통해 부분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남성이 강간의 주된 가해자인 사실(Berry, 1995)은 한국과 같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남성은 지배자의 위치에, 여성은 순종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권력관계는 다시 강간 범죄에 있어 남성 가해자와

1) 이미경, “열린터 운영현황과 과제,” 『열린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1999, 13~14쪽.

여성 피해를 낳게 된다는 논리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Alison & Wrightsman, 1993; 이석재·최상진, 2001).

한편 현대의 다른 사회 이슈들과 같이, 강간 역시 미디어에 따라 정의되고, 여기에 따라 수용자의 인식 역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대로 강간 사건의 보도에 있어 미디어는 특정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수용자에게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미디어를 제외한 여타의 정보원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는 곧 수용자가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사실을 현실로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Gerbner, Gross, Signorielli & Morgan, 1980).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 강간과 같은 범죄 보도의 경우는 해당 보도 내용이 어떤 초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수용자의 강간 범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강간 보도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이해를 위해서는 수용자들의 사회적 현실인식과 깊은 연관이 있는 뉴스 프레임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레이밍 이론의 모태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이다. 즉, 현실을 구성하는 것은 대상의 존재적 위치가 아니라 그것과 맺는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다(박종화, 2003). 이런 맥락에서, Entman(1993)은 미디어 프레임(media frame)이란 “현실 지각에 있어 특정 면을 선택, 강조함으로써 현저하게 만드는 의미 구성과 그에 추동된 수용자의 인식 틀”이라 정의한다. 그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미디어는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회적 힘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프레이밍은 현실에서 특정 속성의 일부에 현저성을 부여함으로써 메시지를 조작하게 되는데, 현저성은 개별 정보를 수용자가 더 주목하고 기억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통해 생성된다(Entman, 1993). 개개인의 지각은 사회 현상에 대한 의견을 구성하기 때문에, 현저성은 개인적 정보 처리수준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디어 프레임 배후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현실과 환경의 구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Kosicki, 1993).

Scheufele(1999)는 ‘미디어 프레임 - 수용자 프레임’ 관계에서 프레이밍을

파악할 것을 제안한 Kinder와 Sanders(1990)의 주장을 바탕으로 프레이밍 연구를 새롭게 분류하였다. 여기서 미디어 프레이밍이란 ‘정치적 담론 안에 내재된 장치’이다. 반면 수용자 프레이밍이란 ‘마음 속 내부구조’로 정의된다. 전자가 미디어의 대 수용자 영향력에 관심을 둔다면, 후자는 미디어의 보도를 해석하는 수용자의 내부 인지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특정 이슈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체화(hypostatization)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의 경우, 위 범주 중 미디어 프레이밍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예에 해당한다. 이를 따로 텍스트 분석적 접근이라 명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특히 매스미디어 메시지를 분석하여 그 안의 의도를 밝힐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 관점에 따르면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는 메시지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가 구성되고 개별 수용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일종의 담론이다(Gans, 1979). 이런 맥락에서 Gitlin(1980)은 프레이밍이란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제시, 선택, 강조, 배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패턴이며 이 패턴에 따라 상징조작자가 일상적으로 언어적 또는 역사적 담론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개념화했다(임양준, 2007에서 재인용). 따라서 정확한 담론의 해석을 위해서는 우선 메시지 안에 주입된 미디어 이데올로기를 먼저 파악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회적 의미 구성은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편향된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뉴스 프레이밍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그 이슈를 인지하고, 어떻게 이해하며,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와 같은 항목들을 결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Kosicki, 1993).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 프레이밍은 사회적 현실을 재구성하고, 구성된 현실을 전파 시키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뉴스는 대중들로 하여금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제한하며,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또한 변화시킨다. 이런 변화는 미디어가 제공하고 수용자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에 의해서 뿐 아니라 프레이밍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보의 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의견 변화나 태도의 변경이 논쟁 그 자체만으로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반응이나 연관된 추론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나은경, 1998).

Iyengar(1991)에 따르면 뉴스 프레임은 일화적(episodic)이거나 주제적(thematic)이다. 일화적 프레임이 이슈를 개인적 사건이나 특성에 연결 지어 보도하는 것이라면 주제적 프레임은 더 거시적·구조적 관점에서 이슈를 설명하는 형태를 지칭한다(Iyengar, 1991). 이준웅(2001)에 따르면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수용자는 사회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귀인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주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수용자는 사회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사회체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귀인하는 방향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차이는 뉴스가 제공되는 방식에서 연원한 것인데, 정보를 처리하는 매체 소비자의 인지과정에 뉴스 제공방식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Bennett(1988)에 따르면 개인적 수준으로 환원된 보도는 이슈의 개인화를 통한 정보의 파편화를 불러 구조적 문제를 왜곡하거나 논의의 장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만일 강간 보도에 있어 일화적 프레임이 미디어 텍스트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강간 범죄는 특정 개인 또는 부류에만 한정된 문제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주제적 프레임으로 강간보도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강간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예방과 피해자 구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구조적 원인 파악과 그 대안에 집중될 수 있다.

2) 강간 통념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강간 통념이란 한 마디로 사실과는 다른 편견들, 즉 강간을 보는 그 사회의 왜곡된 시각이라 정의될 수 있다(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 다시 말해, 현재 존재하는 강간에 대한 통념들은 성(sexuality)에 대한 남성 위주의 시각과 폭력행위의 허용 경향 등 현 사회의 모순적 이념체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석재와 최상진은 “강간통념은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적인 사고와 힘의 상대적 우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규범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2001, 97~98쪽). 강간에 대한 통념은 성별이나 연령, 성역할 인식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무의식중에 수용하고 있고(이건호·강혜자, 2005), 성폭력 사건의 지각과 해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Kelly, 1988). 이러한 강간통념은 폭력행위를 남성의 본능으로 합리화시켜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강간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인 여성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며 나아가서는 피해자가 사회에 적응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이석재, 1999). 또한 강간에 대한 그릇된 통념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강간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리게 된다(Brownmiller, 1975). 결과적으로 이러한 피해자 비난현상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여지가 있고,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초래하여 성폭력 범죄의 예방에 장애물이 될 우려가 있다. 이석재와 최상진(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강간통념을 많이 수용할수록 성폭행사례를 강간통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각하고 성폭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간 통념은 성역할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Malauth(1981)는 강간범이나 조사대상인 대학생 가운데 성폭력을 해보았거나 또는 체포되지 않을 경우 강간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른 남자들보다 강간 통념을 더 잘 수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urt(1991)는 성이 고정 관념화되고 여성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강간통념을 깊이 수용하고 강간에 대해 더 관용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석재와 최상진(2001)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간통념의 수용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발견되었고 성폭행의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erry(1995)는 강력 범죄의 하나인 강간이 실제로는 중범죄로 취급되지 않고, 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강간통념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 이러한 현상은 강간과 같은 성폭력 범죄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범죄의 재발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Burt(1980)도 강간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고 왜곡되는 현상을 강간에 대한 사실이 아닌 신화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는데, 그 신화의 근저에는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인 여성 측에 전가하는 내용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강간통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데, 이와 관련해 Kopper(1996)는 강간통념을 많이 지닌 사람일수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도 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적인 유교문화권에서는 남성이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남성 중심의 성역할 가치를 내재화하였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이석재·최상진, 2001).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는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강간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Allison & Wrightsman, 1993).

이석재와 최상진(2001)은 Burt(1980)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국적 상황에서 강간통념의 하위차원들을 찾아내고 그 차원 상에서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차이가 있다면 인식차이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지각, 성행동 및 성폭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들은 우선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있는 정도와 성행동 및 성폭력 경험을 설문하였는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경험’,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의 4가지 요인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강간기사에 나타난 강간통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은 성폭행 피해의 책임이 여성 쪽에 있다는 것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성폭행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피해자의 성경험’은 강간피해자는 저소득 가정 출신, 피해자의 확대경험, 피해자의 성욕, 성관계에 대한 평판 등에 대한 신념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은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기고, 강간을 보고하는 여성은 강간당하기 이전에 성경험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상황을 조성한다는 등의 통념을 말한

다. 마지막으로,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는 여성의 특정 행동들이 곧 성관계를 허락하는 것을 암시한다는 통념을 의미한다(이석재, 1999; 이석재·최상진, 2001).

한편,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근거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률 및 행동으로 이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신념”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성차별은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들이 겪게 되는 독특한 억압형태라고 볼 수 있다(민경환, 1989; 윤병혜·고재홍, 2006에서 재인용). 성차별주의(sexism)는 기존의 인종차별주의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집단에 대한 적대감에서 기인한 편견의 표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성이 남성의 권위나 영역을 침범하는 데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적 감정의 표출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Glick와 Fiske(1996)는 성차별주의를 양면적인 특성이 내재된 편견으로 개념화 하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성차별주의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감이라기보다는 질시와 애정이 뒤섞인 이원적인 속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여성에 대한 편견은 적대감과 온정적인 태도 어느 일방이 아니라 양자 모두가 공존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Glick와 Fiske(1996)는 이를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적대적 성차별(hostile sexism)이란 여성이 남성의 권위나 영역을 침범하는 데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나타낸다면, 온정적 성차별(benevolent sexism)은 전통적 역할에 부합되는 여성들을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호의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Glick & Fiske, 1996). 실제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성은 남성에게 폄하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흠모의 대상이기도 하였다(윤병혜·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주의이론에 따르면 성차별주의는 크게 부성주의(paternalism),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 이성애(heterosexuality)의 세 가지 하부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적대적인 감정과 온정적인 감정의 양면적인 특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다(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 구체적으로, 부성주의는 여성에 대한 애정과 보호본능을 나타내는 보호적 부성주의(protective paternalism)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성과 지배논리

를 의미하는 지배적 부성주의(dominant paternalism)를 동시에 내포하는 양면적 속성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성역할의 분화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정당화시키는 경쟁적 성역할 분화(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와 여성은 남성에게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을 강조한 보완적 성역할 분화(complimentary gender differentiation)로 구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성애는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갖기 위해 성적특성을 이용한다는 적대적 이성애(heterosexual hostility)와 남성은 사랑하는 여성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친밀한 이성애(heterosexual intimacy)의 양가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

윤병혜와 고재홍(2006)은 남녀 대학생들의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더 높은 성차별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고, 두 가지 성차별 태도 중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차별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강간 피해여성에 대한 비난을 크게 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한편, Masser와 Abrams(1999)는 연령에 따른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간의 상관관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직장인과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비교한 결과 일반인 남성들이 고등학생과 대학생 남성들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간에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연구자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성주의적 역할이나 남녀관계에서의 경험도 많아지기 때문에 온정적 편견과 긍정적 고정관념 요소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보다 일반 남성이 더 높은 온정적 성차별과 적대적 성차별 간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에서 재인용).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은 편견의 개념을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감 차원으로만 이해하려는 기존의 성차별주의 연구흐름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다

(Brannon, 2005; MacDonald & Zanna, 1998; Masser & Abrams, 1999). 그러나 남녀에 대한 태도는 특정 사회나 문화에 내재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를 초월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안상수와 김혜숙, 그리고 안미영(2005)은 Glick와 Fiske(1996)의 연구를 기초로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평가하는 척도(K-ASI)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좀 더 한국적 맥락을 상정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성차별 편견을 이해하는 데 더 유용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여섯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강간보도에 나타난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양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앞서 이루어진 논의에 근거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한국 신문의 강간 보도는 어떻게 프레임되어 왔는가?
- 연구문제 2. 한국 신문의 강간 보도에 나타나는 강간 통념의 형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한국 신문의 강간 보도에 나타나는 양가적 성차별 요소는 어떤 형태를 띠는가?

<표 1>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구성요인

| | | |
|-------------|----------|--|
| 적대적 성차별(HS) | 지배적 남성주의 | 남성이 여성보다 권위가 높으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 |
| | 경쟁적 성분화 |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별대우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 |
| | 적대적 이성애 | 여성들이 자신의 장점을 이용해 남성들로부터 자신이 얻고자 함을 얻으려 함을 의미 |
| 온정적 성차별(BS) | 보호적 남성주의 |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야 함을 의미 |
| | 보완적 성분화 | 여성들은 남성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할 수 있음을 의미 |
| | 친밀한 이성애 | 남성은 사랑하는 여성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음을 의미 |

3. 연구 방법

1) 자료의 수집과 표집

강간에 대한 우리나라 신문의 보도를 분석하기 위해 선택한 매체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의 이른바 ‘빅 3’와 한겨레신문이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네 신문들은 모두 구독자 수와 그 현실적 영향력 차원에서 국내언론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인쇄매체라 할 수 있다. 연구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신문을 선정한 이유는 동일한 이슈라도 언론사의 조직문화와 직업규범에 따라 보도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Shoemaker & Reese, 1996)는 가능성을 고려해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강간 범주는 그 성격상 여성운동에 관한 담론과 결부되기 쉽기 때문에, 여타의 주제에 비해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보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측면도 고려되었다.

연구기간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1990.1.1~2007.12.31)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해당기간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자료수집이 용이하다는 점과 통시적인 본 연구의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 자료의 수집은 한국 언론재단의 신문 데이터베이스(KINDS)²⁾와 한국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³⁾ 그리고 중앙일보 인터넷 사이트⁴⁾를 이용해서 이루어졌는데, 먼저 표제어(‘강간’/ ‘성폭행’/ ‘성폭력’)를 사용하여 연구기간 중 보도된 기사 전수를 검색한 뒤, 중복된 기사나 단순 인용사례 등 관계없는 기사들을 제거하는 자료 정화(data screening) 과정을 거쳐 수집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의 총 수는 7,719건에 달하며, 그중 중앙일보의 기사가 2,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조선(1,992건), 한겨레(1,975건), 그리고 동아일보(1,543건)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http://kinds.or.kr>

3) <http://kiss.kstudy.com/archive/Main.asp>

4) <http://www.joins.com/>

일차적인 분석 기사의 수집이 완료된 후, 층화 표집(stratified sampling) 기법을 사용하여 최종 분석될 기사들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1년 단위로 모집단을 층화한 후, 각 단위별로 무작위로 30개의 표본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각 신문마다 540개씩, 총 2,160개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2) 분석 유목과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분석 틀은 총 17개의 변인들로 구성되었다. 다음의 <표 2>는 그 주요 분석유목과 그 세부 차원을 정리한 것인데, 매체 종류, 기사 종류 등 기사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부가적 정보와 관련된 유목들은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언급치 않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 신문들에서 강간 범죄가 어떻게 명명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비록 하나의 유목으로 강간 범죄의 호칭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적법한 호칭이 아닌 다른 호칭으로 강간을 명명할 경우,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그 범죄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 때문이다. 다음으로 특정 강간 사건의 보도에서 그 구체적인 과정이나 사건 자체의 부수적 정보가 얼마나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총 4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기서 제1수준의 노출이란 범죄의 단순한 시간과 장소가 드러난 경우를, 제2수준은 범행방식이나 과정 등의 서술이 개괄적으로 표현될 경우를, 제3수준은 피해자(가해자)의 단편적 정보(직업, 나이 등) 정도까지 노출된 경우를, 그리고 제4수준은 강간의 이야기적 요소(범행의 구체적인 묘사나 피해자 반응 등)나 피해자(가해자)의 구체적 정보 등 사건의 맥락까지 드러나 독자들에게 자칫 선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피해자 정보의 노출 수준도 분석되었는데, 사건 자체의 정보와 마찬가지로 모두 네 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수준은 직업, 나이 등의 정보가 추상화되어 노출된 경우를, 두 번째 수준은 주소나 이름이 부분적으로 노출된 경우를, 세 번째 수준은 인상착의 등 개인적 정보가 일부 노출되었으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인지될 수 없는 경우를, 네 번째 수준은

<표 2> 분석 유목과 조작적 정의

| 변인 | 세부 유목 |
|-------------|---|
| 강간 범죄의 명명 | · 강간/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부정확한 호칭/ 혼용/ 성추행/ 기타 |
| 사건의 묘사 수준 | · 제1수준/ 제2수준/ 제3수준/ 제4수준 |
| 피해자 정보 노출수준 | · 제1수준/ 제2수준/ 제4수준/ 제4수준 |
| 프레임의 사용 | · 일화적 프레임/ 주제적 프레임 |
| 보도 입장 | · 피해자 중심/ 가해자 중심/ 객관적 입장 |
| 강간 통념 프레임 | · 피해자 책임귀인/ 피해자 성 경험/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혼용 |
| 양가적 성차별 프레임 | · 지배적 남성주의/ 경쟁적 성 문화/ 적대적 이성애/ 적대적 성차별 혼용/ 보호적 남성주의/ 보완적 성 문화/ 친밀한 이성애 / 온정적 성 차별 혼용/ 전체 혼용 |

가족관계, 구체적 직업과 나이 등 종합적인 정보의 조합으로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한 사람이라면 유추 가능할 정도의 정보 노출을 의미한다.

강간 기사의 보도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일화 대 주제적 프레임의 사용과 보도 입장이 분석되었다. 특히, 보도 입장은 개별 기사가 강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술되었는지, 아니면 중립적 입장에서 서술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분석되었는데, 전체적 기사의 내용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가 그 판정의 기준이었다.

마지막으로 강간 통념과 양가적 성차별의 두 개념이 어떻게 기사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조작적 정의는 앞서 문헌연구에서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서술하지 않기로 한다.

3) 코더 간 신뢰도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의 코더에게 연구 목적과 각 분석유목의 의미를 설명하는 간략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다음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약 10%(220건)에 해당하는 기사를 단순 무작위 추출하여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는데, Holsti의 신뢰도 계수 평균이 0.83에 달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피해자(가해자) 호칭 변인이 각 0.95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 반면, 강간 통념 변인은 0.78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여 다소의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비록 가장 낮은 값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여겨지는 0.70 수준을 충분히 상회하였기 때문에, 분석의 신뢰성을 믿고 본격적 분석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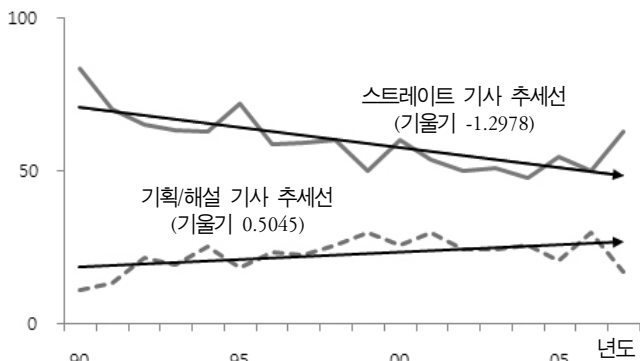
4. 연구결과

1) 기사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매체별로 균일하게 표집된(각 540건 총 2,160건의 강간 보도 중 기사의 장르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이트 기사는 1,286건(59.5%)으로 나타났고, 기획 및 해설 기사가 489건(22.6%)으로, 그리고 가십(120건, 5.6%), 칼럼 및 논단(97건, 4.5%)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표 3>은

<표 3> 기사 장르에 따른 매체별 강간 기사 분포(%)

| | 조선 | 중앙 | 동아 | 한겨레 | 전체 |
|--------|------------|------------|------------|------------|--------------|
| 스트레이트 | 423(78.3) | 294(54.4) | 307(56.9) | 262(48.5) | 1,286(59.5) |
| 기획/ 해설 | 72(13.3) | 123(22.8) | 136(25.2) | 158(29.3) | 489(22.6) |
| 가십 | - | 55(10.2) | 58(10.7) | 7(1.3) | 120(5.6) |
| 칼럼/ 논단 | 18(3.3) | 19(3.5) | 19(3.5) | 41(7.6) | 97(4.5) |
| 사설 | 9(1.7) | 14(2.6) | 8(1.5) | 20(3.7) | 51(2.4) |
| 인터뷰 | 18(3.3) | 9(1.7) | 1(0.2) | 17(3.1) | 45(2.1) |
| 스케치 | - | 12(2.2) | - | 30(5.6) | 42(1.9) |
| 독자 투고 | - | 13(2.4) | 11(2.0) | 3(0.6) | 27(1.3) |
| 대답/ 좌담 | - | 1(0.2) | - | 2(0.4) | 3(0.1) |
| 계 | 540(100.0) | 540(100.0) | 540(100.0) | 540(100.0) | 2,160(100.0) |



<그림 1> 스트레이트 기사와 기획/해설 기사 연도별 변화 추세

이를 정리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이 과반을 넘은 반면, 기획 및 해설 기사나 사설, 인터뷰 기사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신문이 강간 범죄를 다룸에 있어 단편적·단발적인 보도행태를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사 장르의 분포는 매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이 78.3%를 차지하여 전체 평균 59.5%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낸 반면, 한겨레의 경우는 48.5%로 오히려 평균보다 11%나 적은 결과를 기록한 사실이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기획 및 해설 기사에서는 한겨레가 158건(29.3%), 조선이 72건(13.3%)으로 두 배 가량 차이를 나타냈고, 칼럼 및 논단의 경우도 조선(18건, 3.3%), 중앙(19건, 3.5%), 동아(19건, 3.5%)의 세 매체가 비슷한 결과 값을 기록한데 비해 한겨레는 41건(7.6%)로 뚜렷한 격차를 보여 매체의 성향에 따라 강간 보도의 형식이 달리 차용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연도별 기사 분포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은 1990년 전체 83.3%를 시작으로 1995년 71.7%, 2000년 60.0%, 그리고 2005년 54.2%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강간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기획/해설

<표 4> 기사 정보원(%)

| 사건 당사자 | 정부 기관 | 국내 전문가 | 국외 전문가 |
|-----------|-------------|----------|--------------|
| 71(3.3) | 1,312(61.0) | 190(8.8) | 16(0.7) |
| 국내 언론 | 해외 언론 | 기타 | 계 |
| 368(17.1) | 159(7.4) | 36(1.7) | 2,152(100.0) |

* 코딩 오류 등 8건은 분석에서 제외

기사는 1990년 10.8%, 1995년 18.3%, 2000년 25.8%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⁵⁾ 강간을 비롯한 성 범죄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노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그림 1> 참조).

강간 기사에서 가장 주요한 정보원으로 등장한 것은 전체의 61.0%(1,312건)를 차지한 정부(기관)로 밝혀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강간이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 사법기관의 매개를 거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의 기사 장르 결과와 함께 우리나라 신문들이 강간을 보도함에 있어 독자적인 취재 대신 정부 출처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기사화하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강간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로부터 나온 기사는 단 3.3%(71건)에 불과했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한 경우도 9.5%(국내의 합산, 206건)에 머물러, 강간에 대한 구조적인 시각 대신 단편적인 사건위주의 보도행태를 견지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표 4> 참조).

2) 강간 범죄의 명명, 사건의 묘사 수준, 피해자 정보 노출 수준

강간 범죄의 명명이 어떻게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명칭은 ‘성폭행(1204건, 55.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5) 기획/ 해설 기사의 05년 비중은 20.8%로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이듬해인 2006년 30.0%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매체별 강간 호칭 교차분석(%)

| | 강간 | 성폭력 | 성폭행 | 성범죄 | 부정확 호칭 | 혼용 | 성추행 | 기타 | 계 |
|-----|---------------|---------------|-----------------|-------------|--------------|---------------|-------------|------------|------------------|
| 조선 | 81 (15.0) | 9 (1.7) | 387 (71.7) | - | 36 (6.7) | 9 (1.7) | 18 (3.3) | - | 540 (100.0) |
| 중앙 | 29 (5.4) | 64 (11.9) | 297 (55.0) | 3 (0.6) | 21 (3.9) | 107 (19.8) | 19 (3.5) | - | 540 (100.0) |
| 동아 | 71 (13.1) | 49 (9.1) | 330 (61.1) | - | 23 (4.3) | 45 (8.3) | 18 (3.3) | 4 (0.7) | 540 (100.0) |
| 한겨레 | 45 (8.4) | 135 (25.1) | 190 (35.3) | 10 (1.9) | 21 (3.9) | 103 (19.1) | 29 (5.4) | 6 (1.1) | 538 (100.0) |
| 계 | 226 (10.5) | 257 (11.9) | 1,204 (55.8) | 13 (0.6) | 101 (4.7) | 264 (12.2) | 84 (3.9) | 9 (0.4) | 2,158 (100.0) |

* 코딩 오류 등 2건은 분석에서 제외

** 매체별 백분율은 매체 기사 수(540건)에 대한 비율

형법상 적합한 명칭인 ‘강간’은 총 226건(10.5%)에 불과해 우리나라 언론이 전체적으로 강간 범죄에 대해 일종의 완곡어법(euphemism)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257건, 11.9%)’ 또는 ‘성범죄(13건, 0.6%)’ 등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심지어 ‘능욕’, ‘갑탈’ 등 강간의 범죄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101건, 4.7%)도 적지 않아 강간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선정적인 측면에서 구성되어왔음을 짐작하게 했다.

강간범죄 명칭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완곡어법 사용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1990년대의 ‘강간’ 호칭은 154건으로 전체 1,199건의 12.8%를 차지한데 비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총 959건 중 72건(7.5%)로 그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반면, ‘성폭행’의 경우는 53.4%에서 58.8%로 소폭 증가하였고 ‘성폭력’ 역시 11.7%에서 12.2%로 증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 신문들이 더 순화되고 중립적인 명칭으로 강간 범죄를 명명하는 쪽으로 기사를 구성해왔음을 알게 했다.

매체별 강간 호칭의 차이는 <표 5>에 서술된 바와 같다. 먼저 조선일보의

경우는 ‘강간’을 81건(15.0%)으로 중앙(29건, 5.4%)이나 한겨레(45건, 8.4%)에 비해 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언급된 기사 장르 분석에서 강간을 조선일보에 비해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다룬 것으로 추정된 한겨레가 그 명칭 선택에서는 오히려 ‘성폭력’(135건, 25.1%)이나 ‘성폭행’(190건, 35.3%) 등 강간의 범죄성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는 단발성 판급 기사 형태를 가장 적게 사용한 한겨레가 법적 용어인 ‘강간’보다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성폭행’ 또는 ‘성폭력’을 차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닌 한겨레의 매체 특성이 강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보다 순화된 용어를 의도적으로 택하게 했다는 것이다.

총 2,160건의 기사 중 강간 사건의 묘사가 등장한 기사의 수는 모두 1,361건(63.0%)으로 우리나라의 강간 보도는 실제 범죄에 대한 묘사가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묘사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기사의 비율은 한겨레 276건(51.1%), 중앙 216건(40.0%), 동아 181건(33.5%)의 순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126건(23.3%)으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조선일보가 독자들에게 강간 사건의 정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다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매체별 묘사 수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χ^2)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표 6>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강간 사건이 일어난 장소나 시간 등 비교적 단순한 정보만이 포함된(제1수준) 기사는 한겨레가 27건(1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아 14건(3.9%), 조선 9건(2.2%), 중앙 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행방식이나 과정에 대한 서술 등의 정보가 포함된 기사(제2수준)의 비율은 조선 198건(47.8%), 한겨레 67건(25.3%), 중앙 71건(21.9%), 동아 68건(18.9%)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나 가해자의 단편적 정보(직업, 나이 등)까지 포함된 기사의 비율은 중앙 179건(55.2%), 동아 191건(53.2%), 한겨레 96건(36.4%), 조선 54건(13.0%)의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강간 사건의 관련 당사자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이름, 거주지, 가족관계 등)가 포함된 기사는 조선 153건(40.0%),

<표 6> 매체별 사건 묘사 수준 교차분석(%)

| 매체 종류 | 사건 묘사 수준 | | | | 계 |
|-------|----------|-----------|-----------|-----------|--------------|
| | 제1수준 | 제2수준 | 제3수준 | 제4수준 | |
| 조선 | 9(2.2) | 198(47.8) | 54(13.0) | 153(40.0) | 414(100.0) |
| 중앙 | 2(0.6) | 71(21.9) | 179(55.2) | 72(22.2) | 324(100.0) |
| 동아 | 14(3.9) | 68(18.9) | 191(53.2) | 86(24.0) | 359(100.0) |
| 한겨레 | 27(10.2) | 67(25.3) | 96(36.4) | 74(28.0) | 264(100.0) |
| 계 | 52(3.8) | 404(29.7) | 520(38.2) | 385(28.3) | 1,361(100.0) |

$\chi^2 = 240.306, df = 9, p < 0.01$

<표 7> 매체별 피해자 정보 노출수준 분포(%)

| | 제1수준 | 제2수준 | 제3수준 | 제4수준 | 전체 |
|-----|-----------|-----------|---------|-----------|--------------|
| 조선 | 135(31.9) | 117(27.7) | - | 171(40.4) | 423(100.0) |
| 중앙 | 186(56.2) | 130(39.3) | 7(2.1) | 8(2.4) | 331(100.0) |
| 동아 | 151(40.2) | 153(40.7) | 26(6.9) | 46(12.2) | 376(100.0) |
| 한겨레 | 112(52.1) | 100(46.5) | - | 3(1.4) | 215(100.0) |
| 계 | 584(43.4) | 500(37.2) | 33(2.5) | 228(17.0) | 1,345(100.0) |

한겨레 74건(28.0), 동아 86건(24.0%), 그리고 중앙 72건(22.2%)의 순서로 밝혀졌고, 매체별 카이제곱(χ^2) 값은 240.306(df = 9, p < 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은 피해자 정보가 노출된 수준에 따른 매체별 기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2,160건의 강간 보도 중 1,345건(62.3%)의 기사가 강간 피해자의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423건(31.4%)으로 피해자 정보를 가장 많이 노출시켰고, 그다음으로 동아(376건, 28.0%), 중앙(331건, 24.6%), 한겨레(215건, 16.0%)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앞서 강간 사건 자체의 묘사와 연결시켜 조선 - 동아 - 중앙 - 한겨레의 차례로 피해자의 정보를 포함한 강간 범죄의 정황이 자세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겨레의 경우 피해자 정보가 노출된 보도 중 추상적 직업, 나이 등 기초적 정보가 전달된 기사의 비율(제1수준)이 5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족관계, 구체적 직업, 거주지 상세 정보 등 강간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의 정체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 노출(제4수준)의 경우는 단 3건(1.4%)로 가장 적은 결과를 보여, 전반적으로 한겨레의 피해자 정보 노출은 타 신문들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는 전체 기사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584건, 43.4%), 제1수준 노출(134건, 31.9%)보다 제4수준 노출이 오히려 더 높은 값을 기록하여(171건, 40.4%) 정반대의 결과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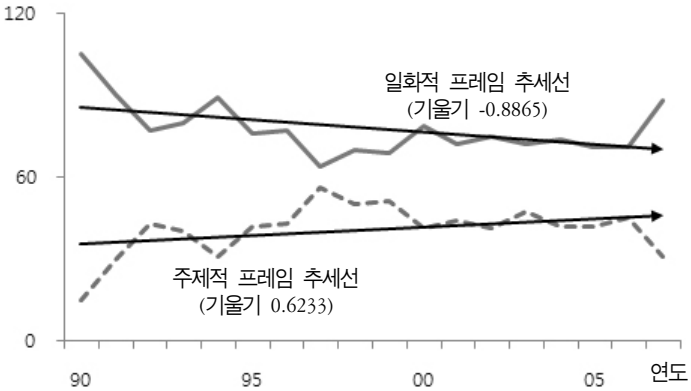
3) 전체적 보도의 관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신문의 강간 보도는 일화적 프레임이 압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화적 프레임이 사용된 기사는 1,399건(65.6%)인 반면, 주제적 프레임은 734건(34.4%)으로 약 두 배 가량의 격차를 드러냈다. <표 8>은 전체 분석 기사의 보도 프레임(일화 - 주제)을 매체별로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카이제곱 값은 134.944(df = 3, p < 0.01)로 신문에 따라 프레임 사용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조선이 일화적 프레임 432건(80.0%) 대 주제적 프레임 108건(20.0%)으로 4 대 1의 비율을 보여 가장 큰 격차를 드러냈고, 뒤이어 동아가 376건(70.1%) 대 160건(29.9%), 중앙이 348건(64.6%) 대 191건(35.4%)의 비율 차이를 기록하였다. 반면 한겨레

<표 8> 매체 - 프레임(일화 대 주제) 교차분석(%)

| 매체 종류 | 보도 프레임 | | 계 |
|-------|-------------|-----------|--------------|
| | 일화적 프레임 | 주제적 프레임 | |
| 조선 | 432 | 108 | 540(100.0) |
| 중앙 | 348 | 191 | 539(100.0) |
| 동아 | 376 | 160 | 536(100.0) |
| 한겨레 | 243 | 275 | 518(100.0) |
| 계 | 1,399(65.6) | 734(34.4) | 2,133(100.0) |

$$\chi^2 = 134.944, df = 3, p < 0.01$$



<그림 2> 일화 대 주제적 프레임 사용 연도별 변화 추세

의 경우는 전체 518건의 기사 중 모든 신문 중 유일하게 주제적 프레임의 비율(275건, 53.1%)이 일화적 프레임의 비율(243건, 46.9%)을 근소하게나마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한겨레가 강간사건을 사회적·구조적 관점에서 다루는 비중이 다른 신문들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는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 사용이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나타낸다. 먼저 일화적 프레임은 1990년 105건(87.5%)에서 1995년 76건(64.4%)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00년 79건(65.8%)으로 잠시 증가하였다가 2005년 71건(62.8%)으로 다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주제적 프레임은 1990년의 15건(12.5%)에서 1995년 42건(35.6%), 2000년 41건(34.2%), 그리고 2005년의 42건(37.2%)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개별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의 보도가 시간적 변화에 따라 차츰 사회적 문제로서의 강간 범죄를 다루는 시각의 보도로 대체되어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결과는 일화적 프레임의 사용비가 일시적으로나마 다시 증가하는 양상(2007년 - 88건, 73.9%)을 보였고, 주제적 프레임의 사용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2007년 - 31건, 26.1%) 우리나라 신문의 강간 보도가 구조적·사회적으로 조망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다소 선부르다고 판단된다.

<표 9> 매체별 보도 입장 교차분석(%)

| 매체 종류 | 보도의 주된 입장 | | | 계 |
|-------|-----------|-----------|-----------|--------------|
| | 피해자 중심 | 가해자 중심 | 객관적 입장 | |
| 조선 | 117(21.7) | 378(70.0) | 45 (8.3) | 540(100.0) |
| 중앙 | 80(14.9) | 164(30.5) | 293(54.6) | 537(100.0) |
| 동아 | 86(16.8) | 188(36.8) | 237(46.4) | 511(100.0) |
| 한겨레 | 113(20.9) | 111(20.6) | 316(58.5) | 540(100.0) |
| 계 | 396(18.6) | 841(39.5) | 891(41.9) | 2,128(100.0) |

$$\chi^2 = 401.061, df = 6, p < 0.01$$

개별 기사가 내포하는 정보의 주된 입장이 강간 사건의 당사자 중 어느 쪽에 더 편향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체별 보도 입장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분석에 사용된 총 2,128건 기사 중 적지 않은 수(891건, 41.9%)가 객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강간의 가해자 위주로 서술된 기사의 수도 841건(39.5%)로 객관적 입장의 예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 반면, 피해자의 시선으로 서술된 기사는 396건(18.6%)에 지나지 않아, 우리 신문이 강간 피해자에 대해 가진 관심이 극히 부족하다는 추론을 가능케 했다.

한편, 교차분석 결과는 매체에 따라 서로 입장 선택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데($\chi^2 = 401.061, df = 6, p < 0.01$), 프레임의 사용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겨레만 피해자 중심 입장에서 서술된 기사 비율이(113건, 20.9%)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된 기사 비율(111건, 20.6%)보다 근소하게나마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또한 중앙과 동아일보는 피해자 - 가해자 입장의 비율이 각 14.9% 대 30.5%, 16.8% 대 36.8%로 대략 1 대 2의 비율로 가해자 중심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21.7% 대 70.0%로 세 배를 넘는 격차를 보여, 전체적으로 강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가장 작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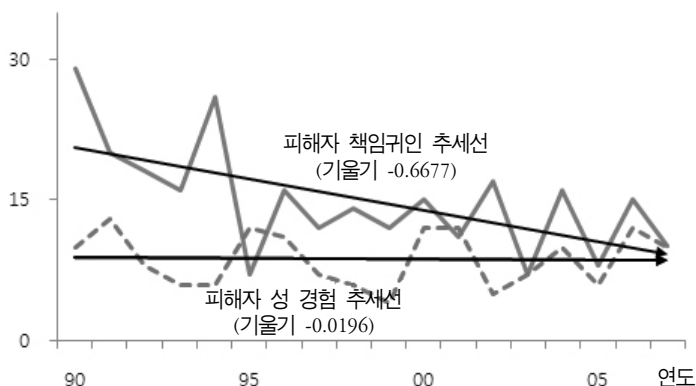
<표 10> 매체별 강간 통념 분포(%)

| | 조선 | 중앙 | 동아 | 한겨레 | 전체 |
|------------------|------------|-----------|-----------|-----------|------------|
| 피해자 책임귀인 | 144(61.5) | 45(59.2) | 33(40.2) | 47(52.8) | 269(55.9) |
| 피해자 과거 성 경험 | 63(26.9) | 21(27.6) | 48(58.5) | 25(28.1) | 157(32.6) |
|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 18(7.7) | 3(3.9) | - | 5(5.6) | 26(5.4) |
|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 9(3.8) | 6(7.9) | - | 10(11.2) | 25(5.2) |
| 혼용 | - | 1(1.3) | 1(1.2) | 2(2.2) | 4(0.8) |
| 계 | 234(100.0) | 76(100.0) | 82(100.0) | 89(100.0) | 481(100.0) |

4) 강간 통념

강간 통념이 발견된 기사의 수는 총 481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기사(2,160건)의 약 22.3%에 해당하는 양이다. 통념의 세부 유형의 구성비는 은연중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269건(55.9%)으로 수위를 차지하였고,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을 강간의 이유로 적시하는 경우가 157건(32.6%)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항목과 ‘이성 행동에 대한 오해’ 항목은 각각 26건(5.4%)과 25건(5.2%)을 기록하여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나 이상의 강간 통념이 혼용된 경우도 단 4건(0.8%)에 불과하였다. <표 10>은 이러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매체별 강간 통념 분포 결과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이제까지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점을 보인다. 특히 한겨레의 결과가 그러한데,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도하고,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강간을 보도했다고 여겨지는 한겨레의 기사에서 의외로 많은 강간 통념이 발견된 것이다(89건, 18.5%). 그러나 이는 한겨레의 기사 중 기획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소개 등을 통해 남성들이 갖는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적시된



<그림 3> 피해자 책임귀인과 피해자 성 경험 유형 연도별 변화 추세

경우가 타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비록 한겨레에서 나타난 강간 통념의 양이 중앙(76건, 15.8%)이나 동아(82건, 17.0%)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조선일보(234건, 48.6%)의 결과에 비해 훨씬 적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전 결과들의 연장선 상에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조선일보는 가부장적 관습과 깊게 연관된 강간 통념의 비율이 다른 신문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에서 매체 이데올로기가 상대적으로 남성화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분석 기사가 작성된 당시의 조직 내부의 편제(기자들의 성비) 등 제반 여건과 맥락적 요인이 충분히 고려되었을 때나 비로소 확증할 수 있는 것으로 선부른 추론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림 3>은 연도별 강간 통념의 변화상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 유형인 책임귀인과 성경험의 변화 추세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책임귀인 통념은 1990년의 29건(10.8%)에서 1995년 7건(2.6%), 2000년 15건(5.6%), 2005년 8건(3.0%)로 증감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으로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기울기 - 0.67). 또한 피해자 성경험 유형도 1990년 10건(6.4%)에서 1995년과 2000년 각 12건(7.6%), 2005년 6건(3.8%)을 기록하여,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

언론의 강간보도 경향이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해 범죄의 피해자인 여성에게 책임을 귀인시키는 오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관습과 폭력행위의 허용 경향 등 사회 모순적인 이념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Kopper(1996)는 강간통념이 많이 존재할수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시각과 가치체계의 변화는 성폭력행위를 남성의 본능으로 합리화시켜 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를 유발하고 범죄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추세라고 볼 수 있다.

5) 양가적 성차별주의

우리나라 신문의 강간 보도에서 양가적 성차별적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전체 2,160건의 분석 기사 중 약 29.1%에 해당하는 629건의 기사에서 양가적 성차별 유형들이 발견되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성차별 유형은 보호적 여성주의로 전체 성차별성 기사의 83.0%(522건)를 차지하였고, 경쟁적 성분화(7.2%), 지배적 여성주의(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성차별 유형 결과는 한겨레에서 발견되었는데(225건, 35.8%), 이는 앞서 강간 통념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즉, 강간의 피해자 구제와 사회 차원에서의 강간 범죄 대책을 다루는 기사의 비율이 높다 보니, 적대적인 성차별보다는 여성의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온정적 성차별 유형들이 포함될 확률이 비교적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겨레의 성차별 유형을 보면, 보호적 여성주의(165건, 73.3%)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런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다.

두 번째로 양가적 성차별 요소가 많이 발견된 신문은 조선일보로 총 189건을 기록하여 전체의 30.0%를 차지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일보 역시 보호적 여성주의(162건, 85.7%)의 비율이 자체 구성비에서 압도적이었던 사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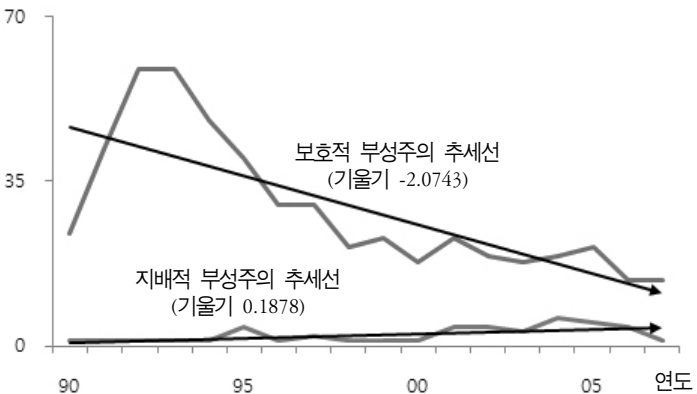
<표 11> 매체별 양가적 성차별 요소 분포(%)

| | 조선 | 중앙 | 동아 | 한겨레 | 전체 |
|-------------|------------|-----------|------------|------------|------------|
| 지배적 부성주의 | 18(9.5) | - | 4(3.2) | 20(8.9) | 42(6.7) |
| 경쟁적 성분화 | - | 11(12.4) | - | 34(15.1) | 45(7.2) |
| 적대적 이성애 | 9(4.8) | 1(1.1) | - | 3(1.3) | 13(2.1) |
| 보호적 부성주의 | 162(85.7) | 77(86.5) | 118(93.7) | 165(73.3) | 522(83.0) |
| 보완적 성분화 | - | - | 1(0.8) | - | 1(0.2) |
| 친밀한 이성애 | - | - | 3(2.4) | 3(1.3) | 6(1.0) |
| 계 | 189(100.0) | 89(100.0) | 126(100.0) | 225(100.0) | 629(100.0) |

데, 기본적으로 이는 현실 상황에서 적대적 성차별 요소인 ‘지배적 부성주의’와 온정적 성차별 요소인 ‘보호적 부성주의’의 구분이 다른 유형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호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비록 지배적 부성주의가 개념적으로는 보호적 부성주의와 쉽게 구별되지만, 큰 맥락에서 강간 피해자 보호라는 입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실제에서의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강간 통념의 예처럼, 객관성을 모토로 하는 언론에서 여성에 대한 적대적 표현(적대적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조선일보의 이러한 결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은 매체별 양가적 성차별 유형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이 강간 범죄와 그 주된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는 강간 보도에서 나타난 양가적 성차별 요소 중 가장 두드러진 유형인 보호적 부성주의와 지배적 부성주의 유형이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나타낸다. 먼저 보호적 부성주의를 사용한 기사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기울기 - 2.07), 구체적으로는 1990년 24건(96%)에서 1993년 59건(98.3%)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2000년 18건(94.7%), 2007년 14건(93.3%)으로 점차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지배적 여성주의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평균 2.3건을 기록하여 추세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울기 0.19). 이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신문의 강간 보도에서 성차별적 요소는 본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여성계의 거듭되는 비판과 제언에도 남성 중심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성차별의 유형 중 보호적 여성주의와 같이 온정적 성차별의 묘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서구사회에서 적대적 성차별 태도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추세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물론 예전보다 우회적이고 교묘해진 형태로 성차별주의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로도 평가할 수 있으나, 적대적 성차별 태도가 클수록 강간통념의 수용도가 높을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 피해자에 대한 더 많은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의 측면에서 봤을 때(윤병혜·고재홍, 2006), 이 또한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림 4> 보호적 대 지배적 여성주의의 유형 연도별 변화 추세

5.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신문들이 강간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는지를 뉴스 프레이밍, 강간 통념, 양가적 성차별주의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주요 신문 4개 사의 강간 보도를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내용분석을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매체별, 시대별 강간 보도의 양상을 통시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석된 강간기사의 유형을 장르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단발적인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이 약 60%로 나타나 과반을 넘은 반면, 기획 및 해설 기사나 사설, 인터뷰 기사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신문이 강간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서 단편적이고 사건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된 신문들이 강간을 보도함에 있어 독자적인 취재 대신 정부 출처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기사화하고 있다는 결과와 연관지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나아가 언론이 강간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게 한다. 그 이유는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할 때는 사실 기사보다는 의견 기사를 주된 도구로 사용하는 성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Bennett, 1988). 물론 시기별 분석결과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칼럼 및 논단 등을 통해 성 폭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강간 피해자의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사회적 문제로서의 강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면 할애가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강간을 비롯한 성 범죄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강간사건의 명명과 묘사, 피해자의 정보노출 수준을 살펴본 결과 강간이란 명칭을 사용한 기사는 전체기사의 약 10%에 불과해 대부분의 신문들이 강간 범죄에 대해 일종의 완곡어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신문들이 독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더 순화되고 중립적인 용어

를 이용해 강간 범죄를 명명하는 쪽으로 기사를 구성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강간사건의 묘사에서는 전체기사 중 강간 사건의 묘사가 등장한 비율은 63.0%로 우리나라의 강간 보도는 실제 범죄에 대한 묘사가 어느 정도 일반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건의 묘사가 등장한 기사비율과 묘사수준의 구체성 측면에서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 신문에 비해 독자들에게 강간 사건의 정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 정보노출 수준과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데, 강간 피해자의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기사 중 조선일보의 기사는 3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노출수준의 정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이는 여성이 대부분인 강간 피해자의 구체적 정보를 비의도적으로나마 제공함으로써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겨레의 경우 피해자의 정보 노출은 양적·질적 모든 측면에서 타 신문들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강간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2차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Foa, Rothbaum, Riggs & Murdock, 1991) 바람직한 보도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강간기사의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신문의 강간 보도는 일화적 프레임이 주제적 프레임에 비해 압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조선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다. 반면, 한겨레만이 모든 신문 중 유일하게 주제적 프레임의 비율이 일화적 프레임의 비율보다 근소하게나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겨레가 강간 사건을 사회적·구조적 문제로 다루는 비중이 다른 신문들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는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Iyengar, 1991). 이러한 일화적 프레임의 주도적인 사용은 이슈의 개인화를 통한 정보의 파편화를 불러 강간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왜곡하거나 한국 사회에서의 강간 범죄는 특정 개인 또는 부류에만 한정된 문제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Bennett, 1988). 하지만 통시적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화적 프레임의 사용이 주제적 프레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전반적인 언론의 보도양상은 개별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의 보도에서 차츰 범죄예방과 피해자 구제, 구조적 원인파악과 대안제시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강간 범죄를 다루는 시각의 보도로 대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도에 대한 주된 입장이 강간 사건의 당사자 중 어느 쪽에 더 편향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체별 보도 입장 차이를 알아본 결과 중립적인 입장(41.9%)과 가해자의 입장(39.5%)에서 서술된 기사의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난 반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서술된 기사는 전체의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신문이 강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부족하다는 해석을 가능케 했다. 다만 앞서 제시된 프레임의 사용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겨레만이 피해자 중심 입장에서 서술된 기사 비율이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된 기사 비율보다 근소하게나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수성향의 매체들에 비해 강간 피해자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로,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나타난 강간통념의 양과 유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강간보도 중 강간 통념이 발견된 기사의 비율은 22.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강간보도 중 적지 않은 기사가 성에 대한 남성 위주의 시각과 폭력행위의 허용 경향 등 현 사회의 모순적 이념체계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강간통념 중 피해자에게 책임을 귀인시키는 경우가 55.9%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통념으로 조사되었고,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을 강간의 이유로 적시하는 경우(32.6%)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론보도에서 강간 통념의 출현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성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의 측면에서 봤을 때(Muehlenhard & Linton, 1987), 일부나마 언론의 강간 보도에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 편견이 자리하고 있고, 그 편견 중 절반을 넘는 많은 부분이 범죄의 피해자인 여성에게 책임을 귀인시키는 오류라는 사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중심의 성역할 가치에 기초한 강간통념은 성폭력행위를 남성의 본능으로 합리화시켜 범죄의 재발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서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2차적 피해를

유발하여 이들이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Burt, 1980).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신문의 강간 보도에서 양가적 성차별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전체 기사 중 약 30%에 해당하는 기사에서 양가적 성차별 유형들이 발견되었고 성차별주의가 나타난 보도의 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대부분의 성차별 유형은 보호적 부성주의로 나타나 우리나라 강간보도에 나타난 성차별의 특성은 적대적인 것보다는 온정적인 것이 지배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간이라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구제와 보호,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 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통념상 남성의 우월성과 지배 논리를 의미하는 지배적 부성주의보다는 여성에 대한 애정과 보호본능을 나타내는 보호적 부성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도의 객관성을 중시하는 언론에서 여성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표면적으로는 여성에게 호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실상 더 교묘하고 우회적인 형태의 성차별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을 통해 기존의 남성중심적 사회구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윤병혜·고재홍, 2006), 이 또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의 하나로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막연히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이 언론의 보도에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통념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탐색해보았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여기서 언론의 보도행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언론의 보도가 그 사회의 통념을 재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강간에 대한 잘못된 언론의 보도는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특히 직접적인 성차별 보도의 경우보다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성차별의 보도는 수용자에게 그것이 성차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용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강간에 대한 보도를 할 때 한 번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보여지는 겉모습만의 평등주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언론이 성폭력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할 때 선정성과 강간통념 혹은 성차별주의에 입각하여 기사를 작성할 경우, 피해자는 언론에 의해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 사회적으로 강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함의와는 달리 몇 가지 한계점을 나타냈다. 첫째, 본 연구는 분석대상으로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의 주요 4대 신문을 선택하였다. 물론, 이들 4개 신문이 여러 가지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미디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 신문의 강간보도 행태를 이들이 전적으로 대표한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강간기사의 보도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층화표집 기법을 사용하여 표본 추출 분량을 설정하였지만, 시기별 층화표집으로 인한 분석 주기의 대표성의 훼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엄격하고 타당성 있는 잣대하에서 언론의 강간보도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강인규 (2005.5.31).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 『오마이뉴스』.
- 고행자 (1997). 『고교생의 성 정보 매체 유형과 성 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경 (1998). 『뉴스 프레이밍 방식의 차이가 사회적 현실에 대한 태도 및 대응방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4권 2호, 146~168.
- 박중화 (2003). 『정치뉴스 프레임의 냉소주의와 정치 행태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 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권 2호, 39~66.

- 윤병해·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1권 1호, 1~19.
- 이건호·강혜자 (2005).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1권 3호, 23~40.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3권 2호, 131~149.
- 이석재·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15권 1호, 97~116.
- 이준웅 (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6호, 441~482.
- 이현정 (2008.5.31). 성인여성 1000명 중 2.2명 성폭행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 『한국일보』.
- 임양준 (2007). 한국 신문의 사람면에 대한 보도형태와 특성 연구: 4대 중앙일간지 사람면 박스기사에 실린 대표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0호, 249~286.
- 조은경 (1994). 강간피해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3호, 73~87.
- 통계청 (2007). 『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서울: 통계청.
- 한국여성민우회 (2006). 『성 폭력 사건 보도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여성민우회 심포지엄 자료집.
- Allison, J. A., & Wrightsman, L. S. (1993). *Rape: The misunderstood crime*. CA: Sage.
- Bart, P. & O'Brien, P. (1985). *Stopping rape: Successful survival strategies*. NY: Pergamon.
- Bennett, W. L. (1988).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NY: Longman.
- Berry, D. B. (1995). *The domestic violence source-book*. CA: Contemporary Books.
- Brannon, L. (2005). Gender stereotypes: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L. Brannon (ed.), *Gender: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159~185). ML: Allyn & Bacon.
- Brownmiller, S. (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Y: Simon & Schuster.
- Burgess, A. W. & Holmstrom, L. L. (1979). *Rape: Crisis and recovery*. MD: Brady.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_____ (1991). Rape myths and acquaintance rape. In Parrot, A. and Bechhofer,

- L. (eds.), *Acquaintance rape: The hidden crime*(pp.26~40), NY: John Wiley & Sons.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26(4), 51~58.
- Foa, E. B., Rothbaum, B. O., Riggs, D. S. & Murdock, T. B. (1991).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ape victims: A comparison between cognitive-behavioral approaches and counsel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715~723.
- Gans, H. J. (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Y: Pantheon.
- Gerbner, G., Gross, L., Signorielli, N. & Morgan, M. (1980). Aging with television: Images on television drama and conceptions of social re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30(1), 37~47.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 unmaking of the news left*.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Howells, K., Shaw, F., Greasley, M., Robertson, J., Gloster, D. & Metcalfe, N. (1984). Perceptions of rape in a British sample: effects of relationship, victim status, sex, and attitudes to wome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1), 35~40.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lly, L. (1988). *Surviving sexual violence*.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inder, D. R. & Sanders, L. M. (1990). Mimicking political debate with survey questions: The case of white opinion on affirmative action for blacks. *Social Cognition*, 8(1), 73~103.
- Kopper, B. A. (1996). Gender, gender identity, rape myth acceptance, and time of initial resistance on the perception of acquaintance rape blame and avoidability. *Sex Roles*, 34(1), 81~93.
- Kosicki, G. M. (1993).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 agenda-setting research. *Journal*

of Communication, 43(2), 100~127.

Malamuth, N. M. (1981). Rape proclivity among males. *Journal of Social issues*, 37, 138~157.

Masser, B. & Abrams, D. (1999). Contemporary sexism: The relationships among hostility, benevolence, and neo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 503~517.

McDonald, T. K. & Zanna, M. P. (1998). Cross-dimension ambivalence toward social group: Can ambivalence affect intentions to hire feminis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427~441.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4, 186~196.

Payne, L. D.,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9). Rape myth acceptance: Exploration of its structure and its measurement using the 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1), 27~68.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s*. White Plains, NY: Longman.

(투고일자: 2008.11.30, 수정일자: 2009.01.08, 게재확정일자: 2009.01.19)

Exploring Rape Reports in Newspapers

A Longitudinal Analysis of Four Korean News Dailies

between 1990 and 2007

Jung-Gyo Lee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Kyung Hee University)

Young-Nam Seo

Doctoral Student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Kyung Hee University)

Su-Jin Choi

Master's Student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Kyung Hee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delves into how rape reports are framed in popular Korean newspapers over time. Specificall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rape myths and ambivalent sexism and were presented in three Korean newspapers. In order to assess longitudinal trends of rape reports, the sample for the content analysis was drawn from 1990 to 2007. Four newspapers, Chosun-Ilbo, Dongah-Ilbo, Jungang-Ilbo and Hankyoreh, which have been the most popular in terms of circulation and ad revenues, were selected for this longitudinal content analysis. Using random stratified sampling and screening process, A total of 2160 articles were content analyzed for the main study. The results revealed that rape reports appearing in Korean newspapers were overwhelmingly dominated by episodic frame rather than thematic frame. Particularly, It was found that Korean rape reports generally have attributed the cause of rape crimes to the victims. Implications for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rape myth and ambivalent sexism theories.

Key words: Media Frame, Rape Myths, Ambivalent Sexism